

수출입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비상대응반 가동

- 국적선사 현황 공유 및 화주 애로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

해양수산부(장관 직무대행 김성범)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물류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11일(수) 18시부터 '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(반장: 해수부 차관)'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.

이번 대응반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하여 물류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부, 중기부 및 해운협회, 무역협회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선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. 현재 해양수산부는 선사와 수시 협의하여 중동 운항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대응반을 통해 화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3월 13일(금)에는 제 1차 실무회의를 통해 중동 상황에 따른 해운 물류의 영향과 수출입 물류 영향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. 또한 향후 협의체를 통해 국·내외 선사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, 화주의 전용 선복 및 선사 매칭 등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.

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“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	책임자	과장 대리	이승혁 (051-773-5715)
		담당자	사무관	양지영 (051-773-5725)